

개 회 사

# 원자력은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구 한 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존경하는 김종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님, 그리고 이 대회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4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차대회에 국내외에서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뤄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먼 길을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토미히로 다니구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님,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대사님, 윌리엄 버칠 미국원자력학회 회장님, 요이치 후지이에 히로시마대학교 학술자문위원님, 주앙 루이스 프랑스와 멕시코 국립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그 밖의 외국 귀빈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 원자력의 설비 비중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되어 그린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원자력계 전문가 여러분,

최근 유가 변동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불안과 기후 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의 필요성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우리 원자력산업계는 그동안 원자력 분야에서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원전 설계, 설비 제작, 핵연료 및 방사선 이용 분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원자력은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그동안 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암 치료, 식품 보존, 비파괴검사 및 첨단 의료 영상 기술 개발 등에 있어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정부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원자력 응용 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작년 8월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에너지 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의 하나로 석유를 포함한 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축소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탈화석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 설비 비중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되어 그린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원자력계 전문가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자원 및 에너지, 경제 성장, 그리고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달려 있고 그 핵심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원자력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원자력산업을 훌륭하게 발전시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인 난제와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제24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아무쪼록 세계 원자력계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익하고 활발한 토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외국에서 오신 내빈들께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체류하시는 동안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과 화려한 경관들을 감상하시면서 한국의 화창한 4월의 봄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원자력 기술 발전과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이번 연차대회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준비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아울러 본 대회에 함께 하여 주신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